네팔 전통 향 '상', 기후위기로 위기 직면

지구온난화에 향나무 성장 악영향
과도한 수확 자연환경 파괴 고충
상업적 채취 금지에도 불법 자행

박영빈 객원기자


상의 주 원료가 되는 검은 노간주나무 잎을 보이는 현지 주민. 사진출처=몽가베이

네팔과 히말라야 지역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향인 '상(sang)'이 기후위기로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등이 상의 주재료인 향나무와 허브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16일 환경문제 전문매체인 '몽가베이'는 현지 주민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안타까운 소식을 보도했다.

검은 노간주나무와 야생 쑥 등의 말린 잎과 가지로 만드는 향인 '상'은 수세기에 걸쳐 네팔과 히말라야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향이다. 특히 서부 네팔의 마낭지구에서 생산되는 상은 뛰어난 향과 품질의 고급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낭지구 출신의 상인 카르마 치링은 "시골은 물론 도시사람들도 아침과 저녁에 상을 피워 불보살께 공양을 올린다"면서 "상 공양을 하지 않고선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네팔 불교의 오랜 전통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통은 과도한 수확, 강화된 보존 규정,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점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상의 주 재료가 되는 검은 노간주나무는 네팔, 티베트, 부탄, 인도, 파키스탄 등 히말라야 지역의 해발 3600~4800m 고지에서 자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종을 '관심대상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네팔 현지의 환경단체들은 이 종에 속하는 모든 나무들이 향과 장작으로 남벌되고 지구온난화로 성장이 줄어드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히말라야 중부지역의 향나무들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원 카다리야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의 증가가 향나무 관목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히말라야 지역의 겨울 가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팔에서는 특정 지구의 식물들이 재생될 시간을 갖도록 수엽 채취 금지 구역을 지정, 당국과 마을 주민들의 감시 하에 지켜지고 있다. 특히 상으로 유명한 마낭지구는 안나푸르나 자연보호구역 프로젝트(ACAP) 관할 지역으로 현지의 불교문화 보존과 전통의 지속을 위하여 1인당 연간 10kg의 노간주 나뭇잎을 가정용으로만 채취할 수 있고 상업적 용도 채취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CAP 측은 "현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의 불법적인 채취가 자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자연환경도 같이 파괴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中, 1000년 전 마애불 새롭게 발견 '눈길'

산시성서 6~7세기 조성 추정
고대 불교전파에 중요한 증거


산시성에서 새롭게 발견된 고대 마애불. 사진출처=글로벌 타임즈

중국 북부 산시성(陝西省) 타이위안시에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새롭게 발견돼 화제다. 현지 학계에서는 불상의 발견을 두고 고대 중국에서 불교가 전파된 경로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13일 'CCTV' '글로벌 타임즈' 등의 현지언론과 외신들은 발견 연구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

발견된 불상은 산시대학 고고학 연구팀의 현장조사 중에 발견됐다. 산시대학 고고학과 부교수이자 발견팀을 이끈 왕 웨이교수는 "이 불상의 발견은 고대 중국에서 남북을 잇는 교통로를 따라 불교가 일찍 전파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해당 불상에 대해 "마애불은 양취현 스자오촌의 북쪽 바위 절벽에서 발견됐다. 벽감 안에 부조형식으로 조성됐으며 낮은 육계와 좌대에 걸쳐진 주름진 천, 호 모양의 옷자락 등의 조각들이 조성 시기를 추정하게 하는 요소"라고 전했다. 또한 "벽감 아래에는 명문을 새기기 위해 다듬어진 직사각형의 바위 면이 있으나 명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상 양쪽에 있는 사각형 구멍에서 불상을 보호하는 처마 등의 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또한 불상이 조각된 절벽 근처 유적지에서 불교사찰과 도관의 유적도 확인했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비석의 잔해를 바탕으로 이 사찰은 14세기에 건립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마애불과 사지들은 이전에는 공식적인 문화유산 조사에 등재된 적이 없었기에, 현재 진행 중인 국가문화유산 조사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왕웨이 교수는 "불상과 유적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불상의 경우 지금까지 양취현에서 발견된 마애불 중 가장 오래된 연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 조사에서 불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불교에 관한 비석이 여러 점 발견되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며 고대 불교미술과 불교의 전파를 연구하는 데 새로운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CCTV는 불상의 발견에 대해 "지리적으로 양취현은 신딩(忻定)분지와 진중(晋中)분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고대 중국의 남북 문화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발견은 해당 지역이 고대 중국에서 불교전래 초기에 중요한 통로임을 재확인시켜준다"고 보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폐위 왕자' 출가…"왕실복귀 신호탄"

베삭데이에 SNS 통해 직접 공개


최근 출가한 태국 국왕 아들 와차라에손. 사진출처=인스타그램

태국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라마 10세)의 폐위된 아들 중 한 명인 와차라에손 비와차라웡(Vivacharawongse)이 최근 방콕에서 출가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국 내에선 그가 다시 왕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5월 27일(현지시간) 타임즈오브인디아(Times of India)에 따르면, 와차라에손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출가 소식을 전했다. 그의 출가는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열반을 기념하는 불교 최대 명절 '베삭(Vesak)데이'에 맞춰 이뤄졌다.

와차라에손은 1981년생으로 태국 국왕 라마 10세와 그의 옛 연인이자 배우 출신인 수자리니 비와차라웡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부모의 이혼 이후 왕족에서 폐위됐다. 이후 미국으로 추방됐고 현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2023년 돌연 태국을 방문한 이후 그는 점차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각종 문화행사 및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태국 정치권 안팎에선 그의 이번 출가를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왕실로 복귀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해당 매체는 "태국 전통에서 왕족의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승려 생활에 전념하며, 특히 공직이나 정치적 역할을 맡기 전에는 더욱 그렇다"며 "미래 지도자들에게 불교의 겸손, 자제력, 그리고 종교적 공덕이라는 덕목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태국 불교계의 가장 큰 연중행사인 '베삭데이'에 출가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가 은밀하게 왕실 업무에 복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캬 린포체 초청 온라인 법문 개최

'수리야갈바 반야경' 통해 지혜 방편 통합 성찰


티베트 불교 사캬 전통의 차세대 지도자 아비크리타 바즈라 사캬 린포체. 사진제공=BDG

불교 경전 번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84000: 부처님의 말씀 번역 프로젝트'(84000: Translating the Words of the Buddha)는 5월 31일(현지시간) 티베트 불교 사캬 전통의 차세대 지도자인 아비크리타 바즈라 사캬 린포체를 초청해 온라인 법문을 개최했다.

'지혜의 햇빛(Sunlight on Wisdom)'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법문은 부처님의 탄생·성도·열반을 기리는 사가 다와(Saga Dawa) 기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사가 다와는 티베트 달력 4월에 해당하며, 불교 전통에서는 선악의 모든 업이 10만배로 증장된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시기이다. 올해는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핵심일인 사가 다와 듀첸은 6월 11일 보름이다.

이번 법문에서 린포체는 반야경을 중심으로, 지혜와 방편의 통합적 실천에 대해 역설했다. 보살이 어떻게 반야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간결하고 심오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문은 중국어(표준어·광동어), 러시아어, 샤르촉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아비크리타 바즈라 린포체는 4세 때 인도 북부 데라둔으로 이주, 전통 불교 교육을 받았다. 2010년 종사르 연구소에 입학했고 2016년부터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